

“2032 서울·평양올림픽, 3.8조원 예상”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이 열리면 소요예산이 4조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안에 따르면 개·폐회식, 경기장 개·보수 선수촌, 경기 운영 등에 3조8570억원이 들어간다.

조직위원회가 40%인 1조5428억 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30%인 1조571억원을 분담한다.

조직위원회는 광고료와 협찬 등으로 예산을 충당한다.

서울시, 시의회에 올림픽 유치 동의안 제출

2032올림픽, 평양과 동시 개·폐막식 추진

다만 이 주정치에 사회간접자본 (SOC) 확보 비용이 제외돼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 했다.

서울·평양 올림픽은 2032년 7~8월 중 서울과 평양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열린다. 참여인원은 선수단과 임원, 기자단을 포함해 2만8000명으로 추정됐다.

시는 "대한체육회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평양 공동 개최 유치를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 했다.

또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남·북한 수도가 같이하는 '한반도

통일올림픽'을 실현하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서울·평양 동시 개·폐회식을 개최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100회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시도와 경기장 분산 운영을 통해 경제 올림픽을 실현하겠다"며 "서울은 대한민국의 도시 중에서 평양과 최단거리에 있는 도시로서 SOC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통신·물류 비용이 절감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도라산역으로 들어오는 남북 철도공동조사 열차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가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북은 지난 30일부터 18일 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약 400km)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약 800km)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정

자치구 규칙개정 후 2019년 3월 이후 본격 시행

서울시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규칙 권고안은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m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

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담배소매인이 영업양도를 위해 편의점 신고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불과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짐작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법의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공고일 경우에 한해 5년간 종전 거리 기준인 50m를 적용한다.

규칙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 받은 사람은 사람이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에도 5년간 종전 거리기준(50m)을 적용 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불과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짐작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숙인 멋글씨 작품 서울시민청 전시

오늘 시민청서 내 손으로 그리는 희망 그라피 행사

서울시는 전국 최초 노숙인 대상 멋글씨(캘리그라피) 전문과정으로 개설한 내 손으로 그리는 희망 그라피의 첫 졸업식을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열다고 18일 밝혔다.

노숙인 시설 입소인 26명이 5개월여간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식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 80여점이 15일부터 21일까지 시민청에 전시된다.

졸업생들은 초대 졸업생으로서 행후 동호회를 만들어 동료이자 후배 노숙인의 멋글씨 입문을 이끌고 노숙인 인식개선까지 앞장설 계획이다.

내년 희망 그라피는 4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멋글씨 기본교육·실

서울 특성화고 아이디어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끈 길이 조절기’

65개 학교 총 1581개 단체 참여

올해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참신하고 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서울시내 80개 특성화고 중 65개 교 소속 1581개 단체가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2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대진디자인고 박수빈·배선주 학생(1학년, 지도교사 한혜영)의 ‘미세먼지 마스크 끈 길이 조절기’에 돌아갔다.

미세먼지 조절기는 작은 부품만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길이를 조절해 최대 밀착효과를 줄 수 있다. 손쉬운 사용법으로 편리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저렴한 단가로 제작할 수 있어 판매자의 운영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시는 소개했다.

금상 수상작은 티백을 우려낼 때 음료가 식지 않도록 하고 다 우려낸 티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꼬끼티백(에일리자인고등학교 에디슨 팀)’과 비상 용 링지를 새총 원리를 이용한 탈

출 도구로 대체해 노약자가 손쉽게 휴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안전한 비상용 망치(대진디자인고등학교, 복승이녹차 팀)’이다.

심사위원회는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많았으며 거기에 IT나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한 아이디어들이 상당수였다”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실력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즉시 상품화 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이라고 총평했다.

시는 수상작은 티백을 우려낼 때 음료가 식지 않도록 하고 다 우려낸 티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꼬끼티백(에일리자인고등학교 에디슨 팀)’과 비상 용 링지를 새총 원리를 이용한 탈



완도군 특산품관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